

혼돈에 빠진 선거제 개편

임시국회 첫날 합의 내용 놓고 이견...민주 "국민 동의해야" 한국당 "검토 하겠다는 뜻"...야 3당 "2당 미온적 태도 유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부터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고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은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며 발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국민 앞에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중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더불어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에 탄력을 피우기 시작했다"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피헤가려는 '더불어한국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중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더불어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에 탄력을 피우기 시작했다"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피헤가려는 '더불어한국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 찾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국 씨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주 당 민생연석회의의 주관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평가는 이날 여야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사실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극적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하며 교착 상태는 일단 벗어났지만,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가 옮겨가며 합의 내용 이면에 잠복한 갈등이 곳곳에서 오히려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에 방점을 찍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한 셈이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

여야, 27일 민생법안 처리 합의

3당 원내대표 회동 임시국회 의사일정 확정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건건이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늘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안건 등) 세부 내용은 이후 원내수석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논의 방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

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맡았다. 그러나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는 견해차가 크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靑 특감반 커지는 논란

김 수사관 민간인 사찰 의혹...청 "허위 주장 법적 대응"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 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써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할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나온 첩보 목록을 차례로 열거하며 반박했다. 김 대

변인은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이학재 "한국당 복당"

오늘 기자회견...손학규 "미래로 가야지 왜 뒤로 가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조만간 바른미래당 탈당,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7일 "이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입당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수 대통합의 길을 트는 차원에서 한국당 복당을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측과 만나 복당 문제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한국당에 복당할 예정이었으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면서 복당 시점을 늦췄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 대열에 합류했으며, 올해 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당시 한국당 복당을 고심하다 전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이 싫으니 종이 떠나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이 미래로 가야지 왜 뒤로 가냐"고 평가했다.

손대표는 또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의원을 겨냥해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이 어딴냐"면서 내심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그동안 당대표로 취임해서 당을 포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가려고 했다"면서 "당 기강 잡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겠다. 앞으로 최고위원들과 의논해서 당 기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모듈: LG·화하규셀 고효율 단결정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